
2019년 1/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

2019년 1/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 보고서

□ 조사 개요

○ **목 적** : 경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파악하여 회원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대 상** : 경주지역 제조업체 50개사

○ **기 간** : 2018년 12월 3일 ~ 2018년 12월 13일 (휴일제외 9일간)

○ 조사 내용

1. 기업경기실사지수(BSI), 2019년도 1/4분기 전망치 및 2018년도 4/4분기 실적치 (체감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2. 2018년 4/4분기와 2019년 1/4분기의 정책적 환경 비교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작성방법

1. 분기별로 조사대상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 악화 또는 불변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함.
2.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 수} - \text{악화표시 업체 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 BSI ≤ 200)

2019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

- 경주지역 1/4분기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
『45』로 최근 10년간 BSI 조사중 최저 기록
- 장기간 경기침체로 지역기업들의 느끼는 체감경기는 심각한 위기 수준

I

경주지역 경기전망

- 경주상공회의소(회장 최순호)가 지역의 주요 제조업체 5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주지역 기업의 BSI 전망치가 전분기인 4/4분기 전망치 『46』보다 떨어진 『45』로 BSI 조사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경영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대중, 대미 수출실적의 감소와 함께 국내경기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으로 기업들이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해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 경주지역 대부분의 제조업체도 경기 불확실성속에 현장에서 바라보는 체감경기 또한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자동차산업의 경우 갈수록 세계경쟁력이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경우 내수침체와 수출 부진 그리고 수익성 감소 등 삼중고 속에 심각한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 2019년 1/4분기 중 세부 항목별로는 매출액 부분에서 내수가 50, 수출이 43으로 조사되었으며 영업이익 부문중 내수가 43, 수출 영업이익 45로 나타나 생산 물량과 채산성 지표가 4/4분기와 마찬가지로 기준치 100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4/4분기 매출액 실적치 또한 내수가 57, 수출이 60으로 응답하였으며 영업이익에서의 내수는 45, 수출은 58로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어 당분간 회복세를 기대하는 것은 크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기업 경영에 핵심변수를 묻는 조사항목을 보면

① 2018년도와 비교해 2019년의 흐름은 어떠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절반 정도의 업체가 악화(48.3%) 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올해와 비슷(31.7%), 매우 악화(13.3%), 호전(6.7%) 순으로 나타났다.

② 2019년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리스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환경 변화(39.5%), 내수 침체 장기화(31.9%), 기존금리 인상 가능성(19.3%), 관련 규제법안(7.6%), 산업 구조조정 속도 둔화(1.7%) 순으로 나타났다.

③ 2019년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리스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31.3%),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신흥국 경기불안(24.1%),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21.7%), 고유가 현상 지속(15.7%), 기타(7.2%) 순으로 나타났다.

④ 내년도 사업(투자)계획의 방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보수적(86.7%), 공격적(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경기 불확실성 증대(37.6%), 고용노동환경의 변화(22.6%), 자금조달 어려움(21.5%), 기존시장 경쟁 과다(10.8%), 각종

규제(5.4%), 신규투자처 부족(2.2%) 순으로 나타났다.

- 본 조사에 따르면 경주지역 주요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가 조사 이래 사상 최저의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업체들의 느끼는 체감 경기는 최악으로 조사된 만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기업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차원의 경영안정을 위한 노동유연성 확대와 임금 안정화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림 1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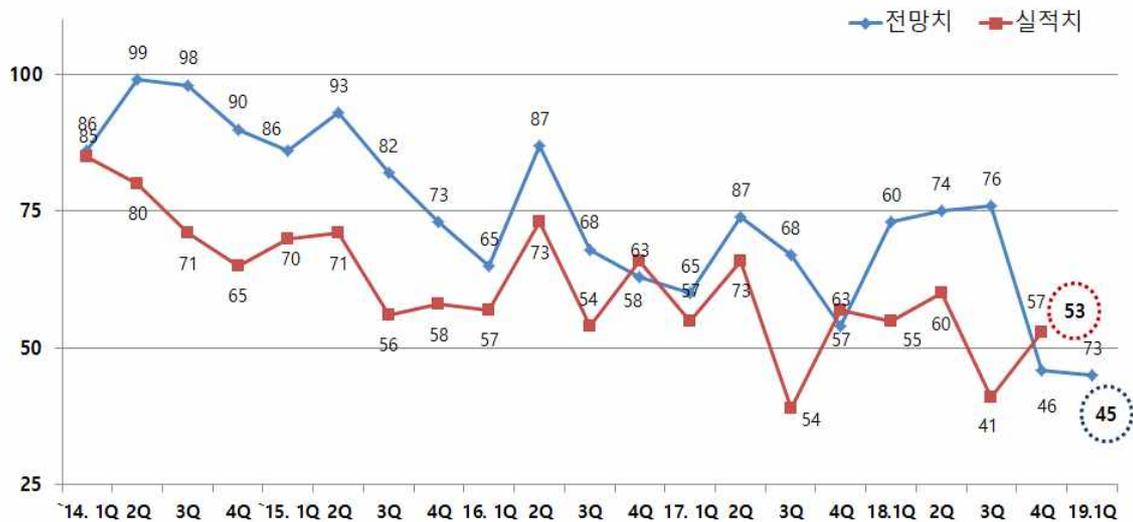


표 1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구분 BSI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전망치	82	73	65	87	68	63	60	74	67	54	73	75	76	46	45
실적치	56	58	57	73	54	66	55	66	39	57	55	60	41	53	

II 항목별 경기동향

- 2018년 4/4분기 실적 대비 2019년 1/4분기 전망을 비교하면, 전반적인 체감경기의 경우 (45→45), 내수 매출액 (57→50), 수출 매출액 (60→43), 내수 영업이익 (45→43), 수출 영업이익(58→45)으로 여전히 기준치 1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 '18년 4/4분기 실적 대비 '19년 1/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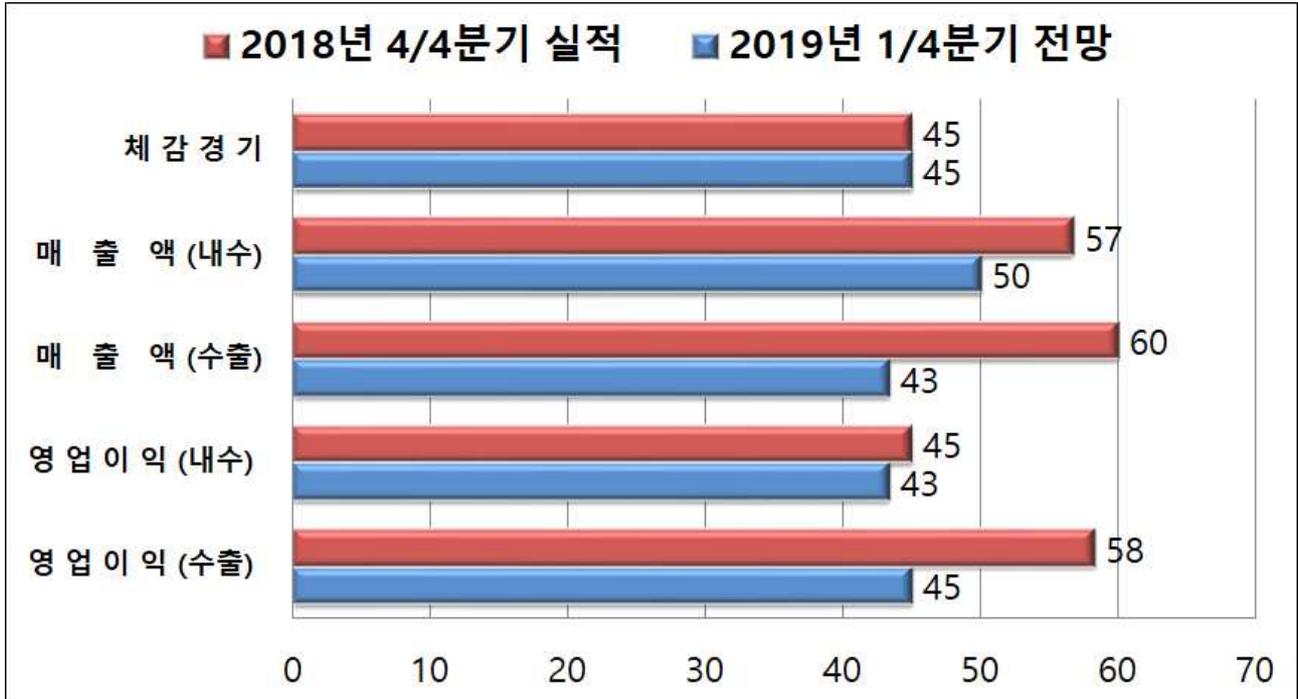


표 2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항 목	기 간		2016		2017				2018						2019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4/4	1/4								
	전	실	전	실	전	실	전	실	전	실	전	실	전	실								
체감경기	50	40	52	76	60	42	68	50	62	31	47	50	76	62	87	60	84	38	46	45	45	
매출액	내수	53	46	64	82	62	44	78	50	63	35	60	60	78	58	90	60	80	38	48	57	50
	수출	53	46	64	82	62	44	78	50	63	55	62	62	74	60	69	74	76	44	52	60	43
영업이익	내수	53	44	60							25	49	56	72	48	79	60	70	34	30	45	43
	수출	53	44	60							45	47	54	66	58	71	46	68	50	52	58	45
자금조달여건				70	94	54	66	62	57	46	58	60	70	42	54							
설비투자	94	100	87	102	84	80	84	103	87													

III

기업 경영 핵심 변수

1 올해와 비교해 2019년의 흐름은 어떠한 것으로 전망합니까?

- 악화 (48.3%), 올해와 비슷 (31.7%), 매우 악화 (13.3%), 호전 (6.7%)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악화	29	48.3%
올해와 비슷	19	31.7%
매우 악화	8	13.3%
호전	4	6.7%
매우 호전	-	-
합 계	60	100%

2 2019년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리스크는 무엇입니까?

-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환경 변화 (39.5%), 내수 침체 장기화 (31.9%), 기존금리 인상 가능성 (19.3%), 관련 규제법안 (7.6%), 산업 구조조정 속도 둔화 (1.7%)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체크)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환경 변화	47	39.5%
내수 침체 장기화	38	31.9%
기존금리 인상 가능성	23	19.3%
관련 규제법안	9	7.6%
산업 구조조정 속도 둔화	2	1.7%
기타	-	-
합 계	119	100%

3 2019년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리스크는 무엇입니까?

- 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31.3%),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신흥국 경기불안 (24.1%),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21.7%), 고유가 현상 지속 (15.7%), 기타 (7.2%)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체크)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26	31.3%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신흥국 경기불안	20	24.1%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18	21.7%
고유가 현상 지속	13	15.7%
기타	6	7.2%
합 계	83	100%

4 내년도 사업(투자)계획의 방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 보수적 (86.7%), 공격적 (13.3%)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보수적	52	86.7%
공격적	8	13.3%
합 계	60	100%

5 ('보수적' 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기 불확실성 증대 (37.6%), 고용노동환경의 변화 (22.6%), 자금조달 어려움 (21.5%), 기존시장 경쟁 과다 (10.8%), 각종 규제 (5.4%), 신규투자처 부족 (2.2%)로 나타났다.

(중복체크)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경기 불확실성 증대	35	37.6%
고용노동환경의 변화	21	22.6%
자금조달 어려움	20	21.5%
기존시장 경쟁 과다	10	10.8%
각종 규제	5	5.4%
신규투자처 부족	2	2.2%
합 계	93	100%

이 자료는

2019년 1월 22일 夕刊부터

보도자료

 경주상공회의소

연 락 처

054)741-6601

본 보도자료는 경주상공회의소 인터넷(<http://gyeongjucci.korcham.net>)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 1/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

경주지역 주요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 「BSI 45」으로

2018년 4/4분기에 이어....사상 최저의 수준으로 나타남

- 경주상공회의소(회장 최순호)가 지역의 주요 제조업체 5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 를 실시한 결과, 경주지역 기업의 BSI 전망치가 『45』로 BSI 조사 이래 최저 수준으로 지역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경영상 위기상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수출실적의 감소와 내수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으로 기업들이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해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 경주지역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경기악화로 기업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경우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그리고 수익성 감소 등 삼중고의 악조건속에 심각한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 작년과 비교해 올해의 경제전망을 묻는 질문에 절반 정도의 업체가 악화될 것(48.3%)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올해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 리스크로는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환경 변화(39.5%)가 대외 리스크로는 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31.3%)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 지역 주요 제조업체 1/4분기 경기전망 조사 결과, 지역업체들의 느끼는 체감 경기가 조사 이래 최악의 위기로 나타난 만큼 기업활동 제고를 위한 각종 기업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차원의 경영안정을 위한 노동유연성 확대와 과감한 세제혜택 및 임금 안정화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본다. <끝>